

강이야기

3

River & Culture



이영희 | 초록미당영농조합 대표이사
(dyfam@hanmail.net)

맥문동과 개맥문동

1. 머리글

개맥문동은 우리 하천의 제방에 잘 자라며 홍수나 장마에 제방유실을 잡아주는 식물이며 겨울 상록성으로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이다. 뿌리줄기에 의해 번식되므로 사면의 모래나 자갈 등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며 민간에서는 약용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농가 소득원이 되어주는 고마운 식물 중의 하나이다. 10월에 익는 열매는 산새들의 겨울먹이로 최고이며 파란 잎들은 산토끼나 고라니의 겨울입맛을 살려주는 수종으로 우리의 하천변 식물 중에 가장 고마운 식물일 것이다.

2. 맥문동과 개맥문동

맥문동 속(屬)은 동아시아에 여러 종이 분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2종만이 자라며, 지하경은 짧고, 옆으로 뿌리줄기가 뻗어 있으며, 5~6월경에 꽃이 피고, 10월에 검정색 열매를 맺는다. 식물학 분류에 의한 우리나라 자생 맥문동속은 2종이지만 유사한 수종인 맥문아제비속을 포함한다면 2

종이 늘어, 4종의 유사식물이 자라고 있다.

3. 맥문동

맥문동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야지에 자라는 수종이지만 현재는 산야지에서 흔하게 찾아보지 못하는 수종으로 약초 재배 농가의 밭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이다. 관리가 쉽고 겨울 상록으로 조경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종이다. 지금의 맥문동은 약초의 수확량이 많은 뿌리가 발달된 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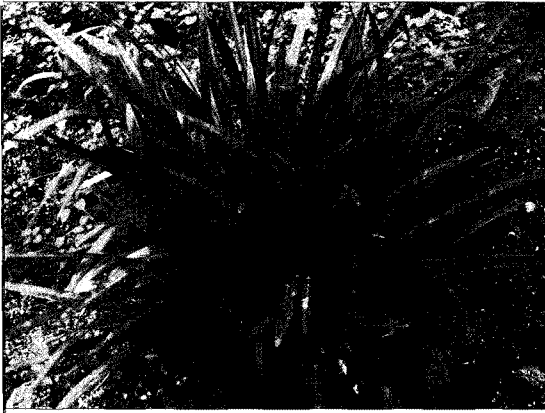


(그림 1) 맥문동

- ▶ 약명 : 맥문동(麥門冬)
- ▶ 속명 : 승상맥동(蠅狀麥冬)·겨우살이 풀
- ▶ 분포 : 우리나라 전국 각처의 산야지(山野地)



〈그림 2〉 맥문동 꽃



〈그림 3〉 맥문동 잎

▶ 특징 : 다년생초본(多年生草本)이며 높이 30~50cm이고 근경(根莖)은 굵고 딱딱하며 옆으로 뻗지 않고 수염뿌리의 끝이 땅콩처럼 굽어지는 것도 있다. 잎은 짙은 녹색이며 밑에서 총생(叢生)하고 길이 30~50cm, 너비 8~12mm로서 끝이 뾰족해지다가 둔해지기도 하며 11~15맥(脈)이 있고 밑부분이 가늘어져 엽병(葉柄) 비슷하게 된다.

5~6월에 꽃이 피고 꽃은 연한 자주색이며 화경(花莖)은 길이 30~50cm이고 꽃이 3~5개씩 마디마다 모여 달리며 화서(花序)는 길이 8~12cm이다.

소화경(小花梗)은 길이 2~4mm이고 꽃 밑부분 또는 중앙 윗 부분에 관절(關節)이 있으며 화피열편(花被裂片)은 6개로서 연한 자주색이고 6개의 수술은 수술대가 꾸불꾸불하며 암

술대는 1개이다.

10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장과(漿果)는 얇은 껍질이 일찍 벗겨지면서 흑색종자(黑色種子)가 노출된다. 높이 50cm 안팎이고 제주도 및 남부지방의 해변산지(海邊山地) 숲속에 자라는 것을 왕맥문동(var. major NAKAI)이라 한다.

- ▶ 용도 : 개맥문동과 같은 용도로 쓰인다.
- ▶ 번식 : 실생법·분주법

4. 개맥문동

개맥문동은 다년생 초본으로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번식하는 종으로 맥문동과는 뿌리의 생김이 다소 다르며 수염뿌리 끝에 땅콩처럼 약초로 이용되는 장과가 달린다. 개맥문동은 하천변 수림하에 잘 자라며 모래땅에 주로 번식되는 종으로 분주에 의한 번식과 종자 번식이 가능한 종으로 제방 유실지역이나 저수호안 유실지에 식재가 가능한 수종이다.



〈그림 4〉 개맥문동

- ▶ 약명 : 맥문동(麥門冬)
- ▶ 속명 : 화엽토맥문동(禾葉土麥門冬)·토맥동(土麥冬)·가맥동(假麥冬)·맥동묘자(麥冬苗子)·야구채(野韭菜)·난화맥동(蘭花麥冬)·구엽맥동(韭葉麥冬)·어자난(魚子蘭)
- ▶ 분포 : 우리나라 전국 각처의 산야지(山野地) 수림하(樹林下)에 자생(自生)한다.

▶ 특징 : 다년생초본(多年生草本)이며 높이 40cm 안팎이고 근경(根莖)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하고 수염뿌리의



〈그림 5〉 개맥문동

끝이 땅콩처럼 굽어지는 것도 있다.

잎은 근경(根莖)에서 총생(叢生)하고 선형(線形)이며 길이 30cm 안팎이고 너비 4~7mm로서 7~11개의 맥(脈)이 있으며 밑 부분이 좁아진다.

5~8월에 꽃이 피고 꽃은 연한 자주색(紫朱色)이며 화경(花莖)은 길이 25~40cm로서 둔한 능선(稜線)이 있으며 화서(花序)는 길이 8~12cm로서 1마디에 2~5개의 꽃이 달리고 소화경(小花梗)은 길이 3~5mm로서 중앙 또는 윗부분에 관절(關節)이 있으며 화피열편(花被裂片)은 6개이고 길이 4mm 정도로서 연한 자주색이다.

10월에 열매가 성숙되고 장과(漿果)는 노출된 종자(種子)로서 흑색으로 익으며 지름 7mm 정도이다.

▶ 용도 : 관상용·약용에 쓰이고 관상초 및 한방에서 괴근(塊根)을 이뇨(利尿)·심장염(心臟炎)·해열(解熱)·감기(感冒)·진정(鎮靜)·창종(瘡腫)·강장(強壯)·소염(消炎)·거담(祛痰)·강심(強心)·명목(明目)·토담(吐痰)·최유(催乳)·진해(鎮海) 등에 약재(藥材)로 쓴다.

▶ 번식 : 실생법·분주법



〈그림 6〉 개맥문동 군락

5. 맺음말

개맥문동은 하천변 수종 중 유일한 겨울 상록성 식물로 수질정화 목적이 아닌 제방이나 법면 보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종으로 우리의 겨울 하천을 푸르게 해줄 수 있는 수종이며, 하천변 서식동물들의 먹이감을 제공해 주고 먹이를 찾아 하천변으로 내려오는 동물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식물이 될 것이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이라는 하천개발의 명제에 가장 부응하기 쉬운 수종으로 맥문동과 개맥문동이 있으며, 겨울하천변의 정서를 살려줄 수 있는 정겨운 식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하천에 잘 자라서 퍼져나가는 맥문동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생태계가 살아나고 복원되는 그 날이 될 것이다. 🌱